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7(土)	8(日)
맑은 뒤 흐림 -2/12℃	구름 많음 2/13℃

News

- 시도지사 “도폐지 반대” ②
- 석산고 ‘봉사동아리’ ③
- 프로축구 K리그 개막 ⑭

Books

- ‘야수의 욕망’은 어디까지 ⑧

Entertainment

- 8년만에 안방복귀 김남주 ⑦



- 스포츠 소재 영화 제작 붐 ⑩

Wellbeing

- 봄철 식물 한번 키워봐 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매화에 취한 봄나들이

봄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이 6일 광양 대화문화축제(14일~22일) 개최지인 광양시 매화마을에서 만개한 매화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고환율 쓰나미’ 서민가계 덮쳤다

식료품·교육비 일제히 올라 실질소득 감소 속 적자 ‘허덕’

주부 김은진(38·화순군)씨는 요즘 시장 보기를 아예 포기했다. 외식은 고사하고 설탕, 양파 등 생필품 구입도 힘들어서다. 실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한 마당에 각종 생필품 가격이 잇따라 올라 줄여도 줄여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한숨이다.

환율 인상과 원자재 값 상승이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설탕, 식용유 등 식료품 값이 오른데다, 참고서 값·학원비도 뛰고 석유류 등 광열비까지 치솟아 서민가계에 ‘물가 쓰나미’가 몰아친 것이다.

5일 광주시가 발표한 3월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형마트의 주요 생필품 평균 가격이 2주 사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2일 기준으로 2주 전 1천

992원 하던 김(김밥용·20장)은 2천648원으로 24.8%나 올랐으며 달걀(60g·10개)도 2천8원에서 2천631원으로 23.7% 상승했다. 1천900원 하던 돼지고기(삼겹살·500g)는 7천995원(22.6%)으로, 2천726원 하던 양파(1kg)도 3천317원(17.8%)으로 뛰었다.

특히 과일은 사과(300g·10개)가 8천770원에서 1만260원으로 15%가 상승했으며 배(600g·10개)도 1만3천292원에서 1만7천727원으로 25%나 급등했다.

요리의 필수 재료인 설탕, 식용유 값도 크게 오른다. CJ제일제당은 오는 9일부터 설탕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15.8% 인상, 하얀 설탕 1kg(부가세 포함, 공장 출고 가격 기준)은 1천190원에서 1천180원으로 올랐다.

주요 식료품 대형마트 평균 가격	
09. 2. 16	09. 3. 2
소고기 (2등급, 500g) 17,947	32,250 (44.4%)
김 (김밥용, 20장) 1,992	2,648 (24.8%)
달걀 (60g, 10개) 2,008	2,631 (23.7%)
돼지고기 (삼겹살, 500g) 6,190	7,995 (22.6%)

(자료:광주시청 경제산업국)

CJ제일제당은 지난달 말 ‘백설 식용유’(1.7ℓ) 가격을 5천200원에서 5천750원으로 10.5%, ‘백설 포도씨유’(900ml)는 8천100원에서 9천500원으로 17.3%씩 올랐다. 사조해표의 ‘해표 식용유’(1.5ℓ)

도 기존 4700원에서 10.6% 오른 5천200원에 팔리고 있다.

교육물가까지 덩달아 올랐다. 울초 고등학생들의 필수 교재인 수학의 정석 시리즈가 1천원씩 올랐으며 초등학교용 종합참고서(6학년용·2만2천500원)도 지난 학기보다 11%, 1년 전보다는 21%가량 뛰었다.

외국에 환원비가 전담에 비해 5.3% 상승하는 등 2월 교육관련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보다 4% 올랐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수입되는 원유와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에서 3%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 3~5원 가량 더 오르게 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치가 지난 달 28일 끝나면서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과 휘사·난방용 LNG는 kg당 각각 7원과 20원인상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법관 이메일’ 파문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독촉’ 논란 확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 파문이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기관장의 사법행정으로 볼지,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볼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사들이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고 재판을 곡해하면 사법부 독립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우리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촛불 관련 재판을 재촉하도록 사실상 이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어떻게 법원장이 판사에게 이런저런 강요를 할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 스스로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 5역회의에서 “재판진행에 관해 사법감독관인 법원장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자체 진상규명과 정화능력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정부, 국적기 北 상공 우회비행 지시

北 ‘민항기 위협’ ... 유엔사 철회 촉구

북한은 6일 한-미 합동의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을 재차 비난하면서 동해상의 북한 영공 근처에서 비행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위협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45분간 열린 유엔사와의 제16차 장성급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유엔사가 전했다.

유엔사 측은 북한의 ‘민항기 위협’ 성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키 리졸브 연습은 방어차원의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8일 0시부터 북한 비행정보구역(북한 B467(한국-러시아·북미·유럽), B332(북한-중국·일본) 항로)가 있지만, 국적 항공사는 B467 대신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북해 평양항로)를 이용하도록 국적 항공



사에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해상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는 B467(한국-러시아·북미·유럽), B332(북한-중국·일본) 항로가 있지만, 국적 항공사는 B467 대신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북해 평양항로)를 이용하도록 국적 항공

/연합뉴스

세계 4대 뮤지컬의 진수 최고의 걸작
한국어로 만나는 최초의 'CATS' 한국공연

놀랍대! 완벽하대! 황홀하대!

2차 티켓박스 오픈
3월 10일

CATS

2009. 4. 21 (화) ~ 26 일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 062-220-0541 | 1588-0766
www.kwangju.or.kr | 티켓마루 옥션티켓 티켓링크